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

(히11:36-40))

서론: 세계 0.2% 인구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은 세계를 장악했는데, 노벨상의 30%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의 언론과 문화, 금융, 경제, 법조 모든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은 유대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놓치고 육신적인 언약만 붙잡았고, 성공하고 자리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이며,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사람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당했지만, 오히려 세상을 살린 사람들이었으며, 세상만 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자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탕이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보이는 세상의 것만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붙잡고, 보이는 것들을 위해 손해 보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들입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일꾼들처럼 영원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1. 언약을 붙잡은 자 실패 없다

- 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히11:6).
- 나.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더라도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렘33:1).
- 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기에 문제, 사건에 내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참된 치유와 갱신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렘33:2).
- 라.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됨을 알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렘33:3).

2. 약속을 가진 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님

- 가.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승리함을 알고 말씀 붙잡는 것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히11:4).
- 나. 언약 붙잡을 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알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히11:33-38).
-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문제가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결론: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날마다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 것이고, 그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남았고, 살아남는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약을 놓친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과 역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나는 언약의 대열 속에 선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질문함으로 실패하지 않는 언약의 대열 속에 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